

문화광장



김연주 문화공간 양 기획자

얼마 전 한 지인이 한숨을 내쉬며 하소연을 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는데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서류 보완이 뭐 힘든 일이라고 하소연까지 하나 싶었지만, 보완을 요청한 이유를 들으니 그럴 만했다. 심의 위원은 공간 대표로 표시된 홍보물이나 신문 기사는 전시를 기획했다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니, 기획에 이름이 들어간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전시 공간 운영은 예술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공간 운영뿐 아니라 전시 기획에도 참여했

예술가는 증명되어야 하는가?

으나, 지금까지 공식 홍보 자료에 공간 대표로만 표기해서 어떻게 기획 참여를 증명해야 할지 난감해했다.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두 가지가 궁금해졌다. 전시 공간을 운영하는 일은 예술 활동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떤 일까지 예술 활동으로 볼 수 있는가? 최근 끊임없이 새로운 예술 장르가 생겨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예술 활동이 생겨나고 있다. 예술 활동의 범위를 묻는 물음은 이러한 현대 예술의 현황을 묻는 말이라 여겨져 답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찰해야 할 문제를 잘못 파악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왜 예술가에게 증명서를 요구하는가를 질문해야 했다. 예술 활동을 즉 예술인임을 증명서로 증명하게 하는 이 제도가 예술가를 지금과 다른 개념으로 바꿔 놓을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챙기면서 미술계에서 일어

난 몇몇 일들에 의심이 생겼다. 예를 들어 몇 년 전부터 큐레이터의 이름이 엮서, 현수막과 같은 홍보물에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한 이유가 큐레이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활동증명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예술가라는 용어 대신 예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명칭에도 의구심이 든다. 예술가가 아닌 예술계에 종사하는 이들까지 수용하기 위해 예술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예술가의 개념을 교묘히 교란하는 듯 보인다. 예술활동증명은 승인받기까지 최소 4주 이상 걸린다. 그런데 요즘 들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해서다. 예술인복지재단 웹사이트의 "사업참여의 첫 단추"라는 예술활동증명 홍보 문구가

그대로 현실에 실현되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관련 예술가를 위한 재난지원금 신청에도 예술활동증명서를 요구했다. 이제 곧 엮서, 신문 기사 등으로 예술가임을 증명하던 시대에서 증명서로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시대로 바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당연히 여겨질 것이 걱정이다. 예술활동증명이 유용하거나 편리한 제도일 수 있다. 그러나 위험성은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1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 승인까지 걸리는 오랜 시간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는 증명되어야 하는가?'와 같이 뜬금없고 답이 없어 보이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제도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적어도 이러한 제도가 기존의 무엇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는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리고 예술가는 작품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설

'탐나는전', 도의회는 왜 '어깃장'인가

고사직전의 지역경제를 살릴 첫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발행 초기 도의회의 '어깃장'에 위기입니다. 도의회 관련 예산을 늘려주기는 커녕 삭감에 나섰고, 지역사회는 의회의 역주행 소식에 아연실색합니다. 지역화폐는 일찌감치 가맹점 확보와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발행액 규모화 등에서 초기 '선전'해야 성공한다는 주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175억원) 예비심사에서 도비 30억원중 20억원을 삭감한게 발단입니다. 이는 2021년도 총 지역화폐 1500억원 발행액을 500억원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당장 도민사회 규탄이 빚뻗었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논평에서 "홍보, 가맹점 확대 등 사업추진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삭감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사업 좌초를 경고했습니다. 도소상공인연합회도 6일

성명에서 "제주인구의 65% 이상이 연관된 소상공인은 안중에도 없고, 지역구 민원에 편승한 탁상 의회가 관련 예산을 늘려주기는 커녕 삭감에 나섰고, 지역사회는 의회의 역주행 소식에 아연실색합니다. 지역화폐는 일찌감치 가맹점 확보와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발행액 규모화 등에서 초기 '선전'해야 성공한다는 주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175억원) 예비심사에서 도비 30억원중 20억원을 삭감한게 발단입니다. 이는 2021년도 총 지역화폐 1500억원 발행액을 500억원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당장 도민사회 규탄이 빚뻗었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논평에서 "홍보, 가맹점 확대 등 사업추진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삭감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사업 좌초를 경고했습니다. 도소상공인연합회도 6일

열린마당

도민의 무관심 속 사라져가는 제주 용천수



이창석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로 인한 생활하수 발생량 증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오염물질의 유입 통로가 되는 허술한 지하수공,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불법 축산폐수 배출, 비료와 농약의 과다한 사용이 용천수의 보전·관리의 위협요소이다. 용천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관리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예로부터 생명이었던 용천수를 보호하기 위해 용천수가 솟아나는 장소에는 반드시 돌담을 쌓아 울려서 가족의 출입을 막거나 또는 주변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했다. 하지만 1953년 상수도의 보급이 진행되고 용천수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관리가 소홀해졌다. 특히 마을에서 용천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공 시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원형을 훼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깨끗한 수질의 제주 용천수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열쇠이다. 도민들의 애정어린 관심으로 제주의 소중한 자산 용천수를 되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의 제주의 수자원 용천수의 전문적인 보호·이용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

로 인한 생활하수 발생량 증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오염물질의 유입 통로가 되는 허술한 지하수공,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불법 축산폐수 배출, 비료와 농약의 과다한 사용이 용천수의 보전·관리의 위협요소이다. 용천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관리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예로부터 생명이었던 용천수를 보호하기 위해 용천수가 솟아나는 장소에는 반드시 돌담을 쌓아 울려서 가족의 출입을 막거나 또는 주변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했다. 하지만 1953년 상수도의 보급이 진행되고 용천수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관리가 소홀해졌다. 특히 마을에서 용천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공 시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원형을 훼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깨끗한 수질의 제주 용천수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열쇠이다. 도민들의 애정어린 관심으로 제주의 소중한 자산 용천수를 되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의 제주의 수자원 용천수의 전문적인 보호·이용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

뉴스-in

"이제야 부교육감 얼굴을 보네"

업무능력 부족 또다시 지적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미숙한 업무 파악'으로 지적을 받았던 박주용 부교육감이 예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혼쭐. 7일 도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주용 부교육감의 업무 파악에 대해 김태연 의원이 질문을 던지자 박 부교육감은 "올해 4월에 부임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며 정무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우회적으로 피력. 이어 임정은 의원도 "부교육감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하면서 자꾸 실감장에게 답변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 송은범기자

어 스피치대회에 축하영상을 보내 준 기노카와시 시장·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청소년 흡스 김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중국 상해시 증빙구와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교류사업 추진 방향 등을 점검. 현명중기자

교류도시와 잇단 화상회의

○...김태연 서귀포시장은 7일 나카무라 신지 일본 기노카와시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공무원 상호 파견사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김 시장은 이날 제26회 칠십리 축제·제1회 서귀포시 공무원 일본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청원

○...제주녹색소비자연대가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에 청원을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 소비자연대는 섬 지역과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이용시 업체에 따라 많게는 2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며 부당한 추가 배송비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 이어 합리적 기준 없이 추가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는 판매자의 횡포이며, 거주 지역에 따른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 고대모기자

코로나 확산, 방역체계 과부하 걸리나

제주지역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이어 이달 들어서도 신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1월 이전에만 해도 있을만 하면 나올 정도로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방역체계의 과부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타지역 확진자의 제주 경우 통보가 잇따르면 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제주도는 서울시와 경상남도로부터 확진자가 제주 방문 사실을 3건 통보받았습니다. 또 수도권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69번 확진자의 접촉자가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지난 6일 제주지역 88·89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제주 69번 확진자의 2차 감염자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제주도 방역당국은 현재가

지 제주 83번과 86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달살이로 제주에 온 이들은 지난 달 19-21일 도내 한 뷔페식당을 두차례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함께한 동선인 도내 뷔페식당에서 무증상 확진자인 관광객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확진자 수만 보면 적은 편이긴 합니다. 문제는 최근 제주에서도 빈발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게다가 수도권으로부터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큰 일입니다. 지난 5일에는 수도권 지역 국내 확진자가 47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가 '2.5단계'에 준하는 비상조치를 달리 내린게 한 원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사실상 통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긴장의 끈을 더욱 더 바짝 죄야 합니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술2리 용암동골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064)725-0993

한라일보가 제주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대 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해브'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9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19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포 732-5552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